

舊韓末 史庫保存과 守護史刹(完)

李 鉉 淙

(국사편찬위원회도서관장)

四. 史庫의 保存豫算과 守護寺刹

史庫保存은 두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史庫에 소장한 史書의 保存이고 다른 하나는 史庫란 建物の 維持保存이다. 史書保存을 위한 曝曬作業이 언제나 규칙적으로 실시되었으며 國權이 유린 당하던 최후까지도 실시되었다. 祖宗朝로 부터 保存 傳承 維持되어온 記錄을 지키는데 조금도 마음을 느루지 않았다. 비록 日帝侵略下에서는 할 수 없이 史書가 우리 손으로 부터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祖宗朝의 國寶를 保存 繼承 시키려는 우리의 精神은 光復後 우리 손으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影印刊行하여 國內外에 널리 頒布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原本도 잘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史庫에 대해서는 그 유지를 위하여 各 史庫別로 守護를 담당케 할 史庫守護寺刹을 부속시키고 거기에 田土, 僧侶들을 소속시켰다. 또한 史庫의 改修나 補修時에는 별도로 經費를 支出하였으며 때로는 史庫改修時에 史庫의 부근에 사는 前職官吏를 補修責任者로 임명하여 費用의 節約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國內外로 事情이 복잡하던 高宗以後에 史庫保存을 위하여 노력한 조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¹⁾ 즉 茂朱 赤裳山에 있는 安國寺의 重修方法을 의문하였다. 安國寺는 赤裳山史庫를 守護하는 大刹인데 그 寮舍와 堂守등을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서 頽破되고 따라서 소속된 僧侶도 모두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이를 重修키 위하여²⁾ 필요한 經費의 總當 목적으로 空名帖 300장을 보내었다. 또한 太白山史庫의 守護寺刹인 覺革寺의 修理經費를 總當하는데도³⁾ 空名帖 400장을 보냈다. 이때도 오랫동안 史庫守護寺刹을 보수치 않아 圮廢하고 守護者인 寺僧들이 四方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前例에 따라 補修費用의 總當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이 같이 해서 補修된 覺革寺가 高宗 17년에 火災로 인해서 타게되자 再建에 필요한 經費의 總當을 위하여 空名帖 500장을 보내고 있다.⁴⁾ 그리고 農事時期를 피하고 또 경비의 절약을 위하여 전과같이 부근에 사는 前

職官吏로 하여금 일을 담당시키고 있다.

위에서 본 것은 대체적으로 高宗 30년 이전을 중심으로 몇가지 例示를 보았으나 1894년 甲午更張 이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달라졌다. 즉 종전까지 費用充當을 위해서 空名帖을 지급하던 例에서 벗어나 金貨로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이미 살핀 光武年에 규정된 史庫守護에 관한 勅令內容에서 열볼 수가 있다.

이때서 史庫守護費도 종전처럼 空名帖과 같은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金錢으로 전체예산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光武2년에는 史庫守護費로서 690元이 책정되었으며⁵⁾ 太白山史庫의 重建費로서 7,251元 18錢 2厘가 계산되고 있다.⁶⁾ 그리고 茂朱 赤裳山史庫의 補修를 위하여 계산된 光武6年度의 예산을 보면 총액이 36,784兩 9錢이다.⁶⁾ 이 때 건립된 건물은 史庫가 7棟 9間으로 비용이 16,024兩, 史庫三門은 그 비용이 1,455兩 5錢이었다. 이로서 비록 一例이기는 하나 外史庫의 규모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때는 元과 兩이 동시에 쓰이고 있으므로 어떻게 換算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同時代에 같이 쓰였기 때문에 큰 차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史庫에 같이 건립되어 있는 辨源閣이 5棟9間으로 17,926兩, 辨源閣三門이 1,379兩 4錢인데 전체적인 규모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

光武 6年은 1902년으로 國權喪失 8년전인바 우리 主權下에서 史庫가 대대적으로 건립되기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 후에도 부분적으로는 보수가 있었으며 그 때마다 비용은 지급하였지만 역시 1905년 이후로는 日帝統監府가 설치되어 獨自性을 잃은 때이므로 예산면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다시 隆熙二年度에 이르러 內閣의 예산 중에서 史庫費가 얼마나 계산되어 있는가를 비교하여 본다면 다음 내용과 같다. 즉

第3款 內閣 金拾萬參千拾四圓

第一項 俸給 金參萬九千一百貳拾圓

第二項 廳費 金四千八百九拾六圓

- 第三項 旅費 金六百圓
 第四項 雜給及雜費 金參千五百拾七圓
 第五項 舍宅料 金四千九百八拾圓
 第六項 官報費 金四千九百壹圓
 第七項 外國人譜給 金九千六百圓
 第八項 機密費 金參萬圓
 第九項 宴會費 金五千圓
 第十項 史庫費 金四百二十圓⁸⁾

이것은 전체 예산면에서 볼 때 불과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제 정식으로 국가 예산에서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隆熙3年度에는 史庫費가 더욱 적게 계산되어 있는데 비교하는 뜻에서 살펴 본다

- 第2款 內閣 金八萬七千七百六拾四圓
 第一項 俸給 金參萬七千九百八拾圓
 第二項 廳費 金五千五百五拾六圓
 第三項 旅費 金千六百圓
 第四項 雜給及雜費 金五千貳百七拾八圓
 第五項 舍宅料 金貳千百圓
 第六項 機密費 金參萬圓
 第七項 宴會費 金五千圓
 第八項 史庫費 金貳百五拾圓⁹⁾

이같이 420圓에서 250圓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豫算面에서 圓과 圓이 동시에 쓰이고 있으므로 原典대로 따랐다.

위에서 본 것은 史庫守護費나 史庫守護寺刹에 대한 비용관계지만 실제로 史庫守護하는데 있어서 寺僧으로서 入番을謀免하려는 僧侶도 있었다. 즉 洛山寺僧 孟欣 得靑 등이 江陵 五臺山 月精寺史庫의 入番을 모면하기 위하여 洛山寺로 부터의 來番僧 在明을 시켜 史庫에 侵入케 하여 櫃子를 뒤져 紅袱를 꺼낸 다음 그 책임을 月精寺에 轉嫁시키고져 하는 變이 있었다. 그래서 孟欣 得靑 在明 등 3인에 대하여 死刑을 減하여 竊에 귀양케 하고 그 외는 觀察使로 하여금 罪의 輕重을 가려서 조치케 하고 있다.

이것은 史庫守護가 얼마나 철저한 가를 보여주는 일면으로 時代가 바뀌어 지는 과정에서도 史庫守護를 위한 노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나 반대로 史庫侵入者를 滅死島配한 것은 예전보다 약간 罰이 누그러진 일면으로 보인다.

五. 國寶保存과 合併後 搬出

史庫에 奉安된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史籍과 璿源閣에 소장된 記錄은 1910年 前後해서 國外搬出 被奪당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리가 民族文化의 維持傳承을 위하여 얼마나 努力하고 애써왔던 가¹¹⁾ 史庫가 정말 國家의 文獻金櫃 石室의 所藏處로서 愛之重之하였던데

서 엿볼수가 있다. 그러던 것을 主權喪失된 후에는 史庫實錄이 日本으로 搬出되었다. 이는 壬辰倭亂에 燒却당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먼저 日本이 韓國併合後 史庫實錄의 搬出狀況을 본다면

「1910년 日帝가 우리나라를 強奪한 後 鼎尼山 및 太白山 史庫의 實錄은 奎章閣圖書와 함께 元宗視府자리에 설치한 소위 總督府 學務課 分室에 移藏하고 赤裳山 史庫의 실록은 李王職(現 舊王宮) 藏書閣에 옮기고 五臺山 史庫의 실록은 東京帝國大學에 갖다 두었었는데 五臺山本은 1923年 關東大震災 당시에 타버리고 정족산 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에 奎章閣圖書와 함께 京城帝國大學으로 移藏하였었다」¹²⁾고 한데서 그 일단을 엿볼 수가 있다.

이상은 亡國後 朝鮮王朝實錄 保存의 變動狀況의 일부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國寶가 搬出 盜難당하였다. 이것은 특히 日本人 高官들의 韓國來往時나 韓國政府에 근무하던 日本人의 손으로 더욱 많은 傷痕이 생겼다. 얼마나 流出되고 얼마나 盜難당했는가 자세히는 않으나 日本側新聞인 明治 編年史를 본다면 그 일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그 내용은

「過般 韓國皇太子殿下 御婚儀의 際 特使로서 派遣된 田中宮相은 其際韓國의 歷史上의 國寶인 白王製五重塔의 珍品임에 重誕하여 二塔의 內 京畿道豐德府(開豐郡 廣德面)에 있는 것을 申受할 手續을 하여 去二月四日 京城在任의 古物商으로 하여금 郡民의 抵抗을 排除하며 多少의 武力을 用하여 難하게 仁川에 持出하여 三月十五日 東京에 到着하여 兩來 上野의 博物館에 保存申인테 右寶塔은 . . . 이를 藥三塔이라 稱하여 尊敬하는 것으로 其價는 貳百萬圓을 算할 만하며 世上에 稀한 珍品이므로 田中宮相이 이를 申受한 手續에 대하여 疑義를 生하여 目下 米國에서도 此問題에 관하여 喧한 評論起하여 同地滯在中의 黑木大將같은 이도 渺치 않는 迷惑을 感하고 있다고」¹³⁾ 이처럼 純宗皇帝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日本 田中宮內相은 韓國國寶를 武力을 利用하면서 까지 강제로 搬出하여 美國에서 까지도 말쟁이 되었음을 알수가 있다.(이것은 현재 景福宮內에 있는 敬天寺 九層石塔으로 國內外的 輿論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려 보내온 것이다.) 이것은 一例에 불과하지만 당시 大韓每日申報를 본다면

法典調査局雇員 赤川令修가 三昨日 下午五時量에 奎章閣에 儲置한 御筆과 其他 重要한 書類를 竊取出來하다가 光化門把守巡查 洪吉求氏에게 被捉하여 日本現事廳으로 押付하였더라.¹⁴⁾

이같이 法典調査局雇員으로 근무하는 日本人 赤川令修가 奎章閣에 소장된 御筆과 그 밖에 중요한 書類를

절취하여 갖고 나가다가 光化門 把守巡查인 洪吉求氏에게 붙잡혀서 日本理事廳으로 押送되었는 바 이는 國內에 들어와 있는 일부 日本人들의 행동의 일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한 현재 英國「런던」의 英國科學博物館에 소장된 우리나라 測雨器이다. 이는 서울農大 李長洛교수가 現地에서 본 設明書を 토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¹⁵⁾ 統監府 韓國觀測所長이었고 合併後 최근의 朝鮮觀測所長이었던 日本人 和田이 韓國全土를 뒤져 2個의 測雨器를 찾았는데 하나는 韓國觀象臺에 비치하고 하나는 日本으로 搬出하였던 것이 지금 英國科學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1923년 4月29일에 日本에서 英國으로 寄進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유럽」으로 搬出된 일례지만 이미 1866년 丙寅 洋擾때 江華島에서 書籍이 약탈되어 「프랑스」의 빠리에 소장되어 있음을 잘 아는 사실이다.

이와는 별도로 비록 統監府 설치후이며 國運이 막바지에 접어든 隆熙3년에 우리 政府의 內部에서도 國內의 各地名所의 古蹟을 調査中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어느 면에서는 앞으로의 日帝를 위해서 點檢하여, 주는 듯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

韓國이 併呑된 후에는 平壤의 舊蹟保存會에 兩宮에서 3千圓을 特賜金으로 내리고 있으며¹⁶⁾ 慶州古蹟保存會에도 特賜金으로 1百圓을 내리고 있다.¹⁷⁾ 이 밖에도 이런 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聖烈朝의 史書를 비롯하여 古蹟 등 정성껏 보존하였지만 1910년 韓國併呑을 계기로 해서 日帝의 手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잘 保存한

史書등 貴重本은 오히려 남아 먼저 보고 主人인 韓國人은 보기마저 어렵게 되어 버렸다. 그러한 결과의 일부는 韓國史가 誤導되는 현상까지도 빚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 日省錄許 高宗元年 9月22日
2. 承政院日記 高宗元年 10月5日
3. 承政院日記 高宗元年 11月3日
4. 承政院日記 高宗 17年 11月29日
5. 官報第870號 光武 2年 2月11日
勅令 第2號 光武2年 1月14日 吏庫守護費
6. 官報 第3191號 光武9年 7月14日
高宗實錄 光武9年 7月11日
7. 光武6年 全羅北道茂朱郡 赤雲山城砦 史兩閣豫算役費明細
8. 勅令第57號 隆熙 2年度 歲入歲出豫算
第2次 統監府計年報 第311表 韓國政府歲出豫算科目別
9. 勅令第104號 隆熙 3年度 12月27日 歲入歲出豫算
10. 高宗實錄 高宗12年 8月2日
承政院日記 高宗12年 8月1日 및 6日
日省錄 高宗 12年 8月2日 6日
備邊司監錄 高宗12年 8月2日 6日
11. 高宗實錄 光武9年 10月1日
12. 申庚鎬「韓國史料解設集」 pp. 14-82
13. 新聞集成 明治編年史 第13卷 p. 266
明治40年(1908) 5月28日
이외에 李光麟譯本「韓國의 獨立運動」 즉
Frederick Arther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에서도
14. 大韓每日申報 癸卯3年 9月6日
15. 李長洛교수(서울대農大)는 1967年 8月 덴마크王立獸醫科農大의 招請敎授로 갔다가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測雨器가 「런던」에 있다는 말을 듣고 歸國途中에 英國科學博物館에 들러 우리 測雨器가 가장 높은 臺위에 특별전시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귀국후에 발표했음이 1967년11月16日 字朝鮮日報에 게재되어 있다.
16. 純宗實錄附 卷5 1914년 10月20日
17. 純宗實錄附 卷13 1922년 7月7日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의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賣下가 願하는 대로 순습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하여서도 빠른 情報을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賣下께서 아직도 費사와 關聯을 맺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을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 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